

<2011년 1월 19일 수요일말씀>

변화의 대역사

본 문 요한복음 3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52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은 “올해 말씀 중에서도 큰 말씀 중의 하나가 변화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재림한다 해도 맞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변화하라는 말씀이 크고도 큰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번 주일에 전초 말씀도 길게 나가고 주님도 이에 대해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준비된 자들의 영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듯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맞게 됩니다. 온전히 준비되지 않고 이상이 있는 영들은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도 마치 고장 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기만 하고 뜨지 못하듯, 영혼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휴거의 영으로 살아나지 못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고로 주님을 맞지 못하고 불행한 영이 되고 맙니다.

올해는 더욱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깨끗한 육과 영이 되어 신부로서 더욱 온전히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영혼이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정한 곳 천국까지 가서 1000년 동안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여 주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 변화하라는 말씀이 올해 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

하시는 만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새해 첫 달부터 말씀을 주시니 모두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라는 말씀은 ‘새롭게 되어라. 변화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변화하되,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삼위의 영, 삼위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변화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영과 육이 변화하게 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성령만 받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만 변화됩니다. 또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육도 영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그렇게도 간구해 놓고 성령을 받고서는 금방 뜨거움이 식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며, 성령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만 하고 끝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령 체험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변화를 이뤄야 합니다.

장마철에 댐에 물을 받듯이 성령만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으

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육도 영도 변화되어 하늘나라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과 일체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살라고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 이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육도 영도 신부급으로 변화되어야 주님의 재림을 맞아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변화하라는 말씀이 올해 말씀 중의 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변화하라는 말씀이 올해 말씀 중의 큰 말씀인지, 또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주와 대역사의 해’로서 변화하라는 말씀은 대역사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변화되는 만큼 개인이나 교회나 섭리사나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나와 대역사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는 만큼 그 자체가 대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신약시대에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자들과는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만이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당세 때 대역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자들만이 주와 대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섭리사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를 이룬 자들만이 30년 동안 주와 대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와 대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섭리사를 떠났습니다.

★ 주님은 “올해도 개인, 가정, 교회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의 마음으로 행하여 변화되는 만큼 축복하면서 대역사를 펴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육으로 신앙의 성장이 멈춘 자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는 그때그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변화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삶이 날로 날로 더 좋게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 한숨만 나오고 희망의 해가 지고 곤고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마다 주님 안에 희망했던 것들이 날로 날로 더 좋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들어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은 즉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 변화하려면 반드시 시대 주님의 말씀을 표상으로 하여 듣고 생각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이룬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루고 살면, 자동적으로 영의 변화가 일어나 영원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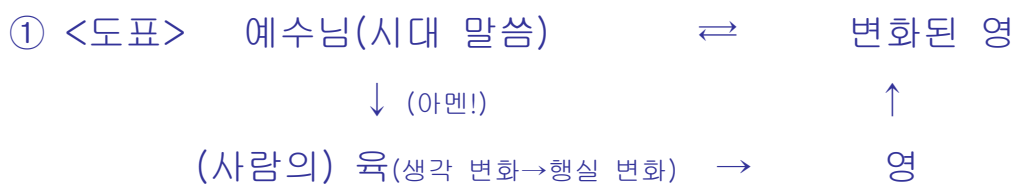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가 할 만큼 했을 때 주님은 단계별로 대가를 받게 해 주십니다. 금방 변화되었다 해도 주님은 금방 안 주십니다. 하루가 끝나야 주시고, 한 달이 끝나야 주십니다. 어떤 것은 1년이 끝나야 주시고, 또 어떤 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에 해당되는 3년 6개월이 끝나야 주십니다.

자기가 변화될 때 마음은 금방 변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 건물 짓듯 오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화되어 완성하게 됩니다.

<영상1>

<자막> 변·화·하·라!

<다음 자막>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 도표는 그림과 자막으로 같이 표현)

<자막과 설명>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첫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둘째, 이에 따라 육신의 행위도 변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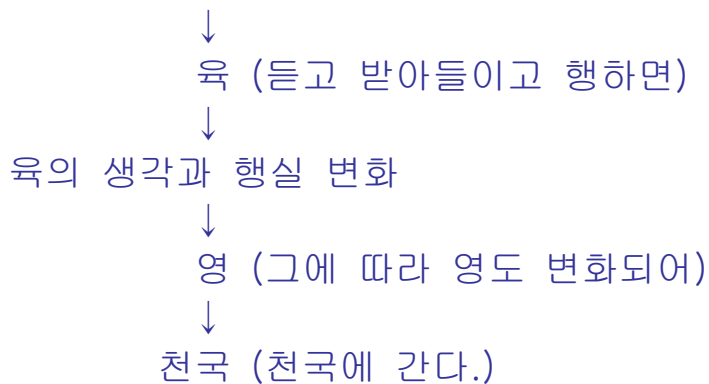
셋째, 이에 따라 자기 영도 점점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예비된

하늘나라 형상의 빛난 영이 됩니다.

- ② 지구가 불덩어리인데, 하나님 창조의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어 비가 오고, 푸른 세상이 되고, 사람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아름다운 환경을 이루며 사는 모습/ 집을 짓는데 아름답게 완공되어 가는 모습/ 험한 것을 때려 부수고 좋은 빌딩을 지어 아름답게 완공된 모습/ 아기가 성장하여 예쁜 여자가 되고, 멋진 남자가 된 모습 (변화되니 아름답게, 멋있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 ‘나도 주님 말씀으로 변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표현)

<자막> 변화되어야 아름답게 되고 목적을 달성한다.

- ③ <도표> 예수님(말씀)



<자막과 설명> 변화하려면 반드시 시대 주님의 말씀을 표상으로 하여 듣고 ‘생각’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이룬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루고 살면, 자동적으로 ‘영의 변화’가 일어나 영원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육신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 영은 변화를 받아 주님을 맞고 천국에 갑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하시니 정말 잘 듣고 변화되어 올해에 받을 축복을 반드시 다 받고, 대역사를 이루고, 꿈과 소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상2> 예수님 출현

(모두 함께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을 때부터 그 씨와 나무는 근본의 모습으로 매일 성장하며 자란다. 매일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며 크다가 결국 목적을 달성하여 곡식이 무성하게 되고 씨를 맺기까지 하고, 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열게 되고 열매는 씨를 맺기까지 한다. 이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변화되어 완성되기까지 이른다.

그러나 씨 혼자, 나무 혼자만으로는 변화하지 못한다.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 나무를 심어야 씨와 나무가 거기서 성장의 변화를 거치며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 너희에게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자. 너희 생명도 상대성을 두고 출발한다. 엄마의 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끊임없이 성장의 변화를 이루며 크다. 변화가 중단되면 죽은 생명이 되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없다. 너희 모두는 생명의 변화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으로 성장되었기에 변화되어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 것이다.

생명이 엄마 태 속에서 자라며 점점 변화를 일으키는데, 스스로 생명의 작용에 의해 성장하며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성장의 변화를 하여 사람으로서 작게 완성된 모습이 된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지금 너희의 모습이 되었다.

★ ‘육의 생명’의 성장도 ‘모태’를 통해서 이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여 완성되듯이, 영원히 살 너희 ‘영의 생명’도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된다. 어머니 태 속의 아이가 자기 스스로

로 성장의 변화를 할 수 없듯이, 저마다 육 속에 있는 영도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의 변화를 할 수 없다. 영의 모태가 되는 육에 의해 성장한다. 마치 태 안의 아이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듯, 영도 육의 모든 행위를 흡수하며 생명의 작용을 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성장의 변화를 하게 된다.

<육>이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생명의 변화를 하고 성장하여 세상에 나온 후에는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유아기 - 유년기 - 소년기 - 청년기로 변화되면서 성장한다. <영>도 자기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한 후에 육 밖에 나와서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변화한다. 영도 유아기 - 유년기 - 소년기 - 청년기로 변화되면서 성장한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체질, 혈액형, 정신, 유전적인 것을 받고 태어나 성장한다. 이와 같이 영은 자기 육신의 사고, 생각, 행위, 선과 악의 영향을 체질적으로 그대로 받고 성장한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영향을 받듯이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으면 몸은 고기의 영양분을 받고, 과일을 먹으면 몸은 과일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받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영은 육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 육신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영상3>

① <곡식, 과일 성장 과정>

* 씨를 뿌린 후 곡식이 성장하며 변화되는 과정

→ 완성되어 황금벌판 이룬 모습

* 나무를 심은 후 과일나무가 성장하며 열매 맺는 과정

→ 완성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은 과수원이 된 모습

<자막과 말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이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변화되고 성장한다.

② <육이 모태에서 성장하는 과정/ 영이 육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 <육의 생명> : 밑에 자막**

정자와 난자가 만남 → 씨가 성장의 변화를 거쳐 태 안의 아이가 점점 크는 과정(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크는 모습) → 갓난아기 → 엄마 품에서 성장하는 모습 (갓난아기 → 유아기 → 유년기 → 소년기 → 청년기)

<동시에 예수님 말씀> 모태에 생명의 씨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사람 본래의 모습을 향해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1초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흡수하고 어머니의 혈액으로 순환하면서, 엄마와 일체되어 성장의 변화를 한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세상에 나와서 유아기 - 유년기 - 소년기 - 청년기를 거쳐 더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

*** <영의 생명> : 밑에 자막**

‘육신’이라는 모태 속에서 영체가 크는 모습 → 육의 생각과 행실의 변화에 따라 영이 변화되며 성장하는 과정(영은 육의 형상을 따라 크다./ 육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크는 모습) → 영 → 육과 함께 1차, 2차, 3차 점점 성장하는 모습

<동시에 예수님 말씀>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태 속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육의 몸에서 한 기간 동안 성장한 후에 육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된다.

* 동시화면 (다시 한 번 더 보여 준다.)

(태 속에서 성장하는 육의 생명과 육 속에서 성장하는 영의 생명)

<각각 밑에 자막 : 육의 성장과 변화 / 영의 성장과 변화>

<자막만> 이와 같이 이러하다.

‘영’은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흡수하여 성장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

을 정확히 깨달았느냐.

★ 이와 같이 영은 육신의 행위를 받아 성장의 변화를 이룬다. 그러나 육신 스스로의 행위로는 영을 구원하지 못한다. 육신이 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실로 사랑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신이 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육이 의를 행하여 하늘나라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의 일을 행함으로 육신도 생명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신의 행위에 따라 영도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성장하게 된다.

오직 내 아버지와 나를 진실로 믿고 사랑하지 않고서 자기 육신 스스로의 착한 행위로는 영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나 예수를 통해 내 아버지를 믿고 시대에 선포한 때에 맞는 말씀을 지켜 살아야 육도 생명권에서 살고, 그 행위를 받은 영도 하늘나라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 때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 육이 착하게 살면서 선으로 봉사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살아도 세상에서만 그 행실의 대가를 받지, 그 영이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지는 못한다. 다만 착하게 산 자들의 영들 중에는 선한 영계로 가는 영들도 있다. 그러나 선한 영계는 열매 없는 과일나무 같아서 그곳에 가도 내 아버지와 나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이 육신을 벗고 영의 몸만으로 살 때는 육신이 없는 고로 더 의를 행하기 어렵고, 나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기 더 어렵다. 세상에서 그 좋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지체를 다 형성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면 고치기가 어렵듯이, 육신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살 때는 온전하게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영이 되기는 어렵다.

선한 영계에 있는 영혼들도 계속 선한 영계에서 살지 못한다. 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영으로 변화되지 못하였기에 선한 영계에 있다가 결국 때가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지옥에 가 보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영들이 많다. 그들은 착하게만 살았지, 영원하신 내 아버지를 믿지 않았으며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왜 자기가 지옥에 왔는지 지옥사자들이 말해 주어 알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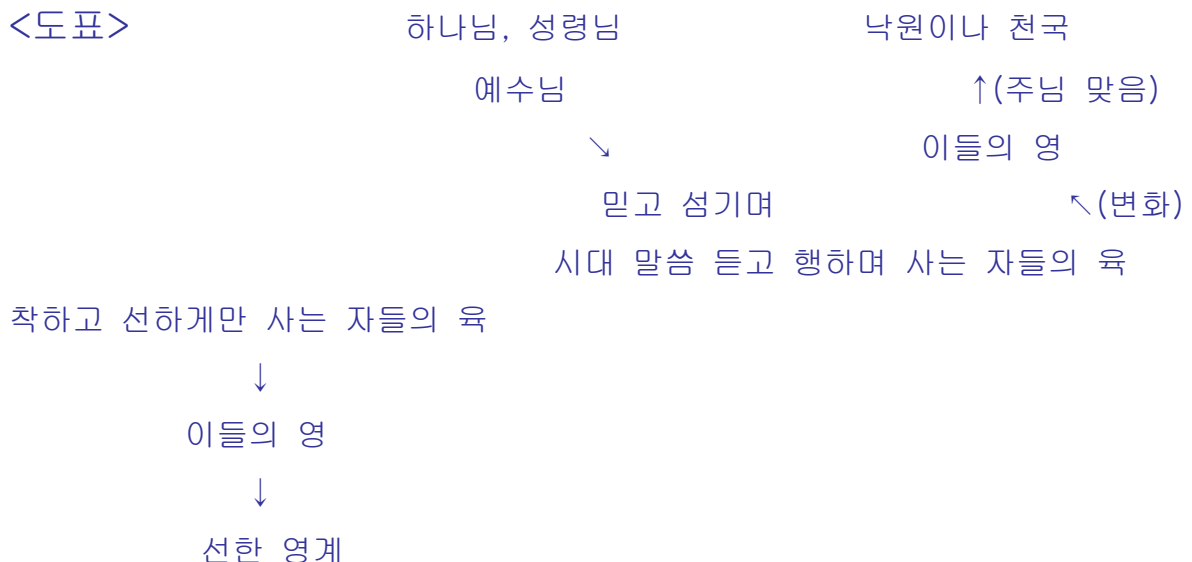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내 아버지와 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고 내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과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의로운 일을 큰 의로 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의로우신 내 아버지를 믿고, 그가 보내신 나 예수를 믿고, 내가 보낸 시대 사명자의 말을 믿고 행함을 의로 본다.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하니 말을 길게 했다. 잘라서 말하자.

너희 영혼은 너희 육신의 행위를 받아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 세상 그 어떤 자든지 사람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오직 전능자 내 아버지와 그가 보낸 자 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나의 성품과 일체 되고 결국 나와 사랑이 일체 되어 너희 영을 하늘나라 형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영상4>

<도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인 영들 ——> 예수님 믿고 생명권으로 나온 영들

(생명권으로 나온다.) (영계에서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지 않은 영들

하늘 주관권으로 나와서 변화되어

✓(때가 되면 사망으로 간다.)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지옥

영계에서는 쉽지 않다.)

(*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운데 세로로 줄긋기.)

<동시에 예수님 말씀 : 도표에서 해당되는 곳 비춰 주며> 영은 육신의 행위를 받아 성장하고 변화된다. 그러나 착한 행위만으로는 영을 구원하지 못한다. 나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시대에 선포한 말씀을 지켜 행해야 육도 생명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영도 생명의 변화를 하여 하늘나라의 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영만이 나를 맞고 하늘나라에 간다./ 육이 착하게 살면서 선으로 봉사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살아도 세상에서만 그 행실의 대가를 받지, 그 영이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지는 못한다. 다만 착하게 산 자들의 영들 중에는 선한 영계로 가는 영들도 있다. 그러나 선한 영계는 열매 없는 과일나무 같아서 그곳에 가도 내 아버지와 나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이 육신을 벗고 영의 몸만으로 살 때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의를 행하기 어렵고, 나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기 더 어렵다./ 선한 영계에 있는 영들도 계속 선한 영계에서 살지 못한다. 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영으로 변화되지 못하였기에 선한 영계에 있다가 결국 때가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 섭리인들은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가치와 결과를 몰라서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행하지 않다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오래된 자들이 오래된 만큼 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많다. 변화한 만큼만 영도 그 차원의 세계에 가게

되고, 육도 땅에서 그 차원의 세계에서 그에 해당되는 축복만 받으며 살게 된다.

올해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더 새롭게 변화하자.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자.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 더 좋게 변화되어야 육도, 마음도, 환경도 더 좋게 되고 영도 그같이 된다. 이것이 너희 각자가 이를 대역사다.

*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미완성 영으로서 안타깝게 끝난다. 너희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 영이 변화되고 형성된다.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는 육도 우상의 육이 되고, 그 영도 우상의 영이 된다. 누구든지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고 내 아버지를 일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라. 나 예수를 믿어도 시대를 좇아 믿어야 그 영이 제대로 변화되어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되어라. 나의 재림을 놓고 급절하게 외치고 이미 오랫동안 말씀했는데도 아직도 신부 준비를 못 한 자들이 많다.

*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나 예수가 다시 올 때에 시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자들의 영만이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와 나를 맞는다. 완전히 준비된 자들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영들만 휴거받게 된다.

*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나의 재림을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온 영들은 자유함을 입고 하늘나라와 지상을 왕래하며 자기 육과 교통하며 협조한다. 다 큰 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 천 리를 가듯, 다 큰 영은 자기 육체를 이탈하여 행하기도 하고, 나의 허락 하에 하늘나라까지 오기도 한다. 영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그 설명이 천층만층이다.

모두 나의 말을 듣고 알고 행하여 영을 변화시키고, 육도 나의 주관권에서 행하기를 바란다. 비진리를 듣고 행하면 육도 영도 변질되어 변질된 음식 썩듯이 사망으로 썩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명심하여라. 나를 믿고 살아도 게으르고, 근성을 고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

쫓리고, 세상에 쫓려 살면서 나와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간다.

<영상5>

<자막만> 변화하는 만큼 영도 육도 그 차원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① <차원이 다른 세계> : 옷으로 차이를 표현

-상 (아주 변화된 자들이 사는 세계 - 예수님과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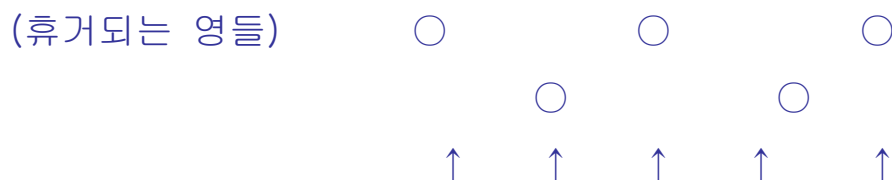
-중 (반 이상 변화된 자들이 사는 세계)

-하 (조금 변화된 자들이 사는 세계)

<자막과 말씀> 변화한 만큼만 영도 그 차원의 세계에 가게 되고, 육도 땅에서 그에 해당되는 축복만 받고 살게 된다.

② <도표> 천사장(나팔) 천사장(나팔)

예수님 재림



상 (아주 변화된 자들) - 이들의 영만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된다.

완성된 자 예비한 자 (신부 옷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

중 (반 이상 변화된 자들)

옷옷만 입은 자 옷을 반만 입은 자 아직 다 못 입은 자

하 (조금 변화된 자들)

<예수님 말씀> 나 예수를 믿어도 시대를 좇아 믿어야 그 영이 제대로 변화되어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되어라.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나 예수가 다시 올 때에 시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자들의 영만이 출연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와 나를 맞는다. 완전히 준비된 자들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영들만 휴거받게 된다.

③ <도표> 주님의 재림 때 휴거된 영들이 하늘나라와 지구 세상을 왕래하며 자기 육과 교통하고 육을 협조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나의 재림을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온 영들은 자유함을 입고 하늘나라와 지상을 왕래하며 육과 교통하고 육을 돕는다.

자기가 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 영을 온전하게 변화시켜라.

* 나 예수가 세상에 있었을 때도 변화되지 못한 자들과는 그 시대 구원의 대역사를 할 수 없었다. 나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행하며 뛰고 날았던 자들만이 사도로서 나와 함께 신약시대 시초의 역사를 펴지 않았느냐. 그 신약역사가 세계적으로 뻗어 가게 되었다.

이 시대도 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따라오는 섭리사 사람들을 데리고 시대 구원역사를 이루며 재림을 위한 대역사를 한다. 너희 선생이 약하고 어릴지라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며 변화되고 성장하였기에 10대, 20대에 혼자 있을 때도 나 예수와 함께 시대 역사를 펴 온 것이다. 오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대역사를 펼 수 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인원수가 많아도 구원역사를 펼 수 없다. 더 좋은 구원과 영광이다.

* 너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가스 불이 꺼지면 왜 꺼졌는지 확인하여 가스가 떨어졌으면 가스통을 다시 새것으로 바꾸어 틀고, 밸브가 잠겼으면 밸브를 열고 다시 틀어야 한다. 그래야 음식을 익히고, 굽고, 끓이고, 삶고, 볶아서 먹고 즐기며 생명을 존재시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불이 꺼지고, 열심의 불이 꺼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식고 꺼졌으면 가

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 꺼졌는지 보고 다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불을 받아야 한다. 그 불로 각종 변화를 일으키고 행하며 보람된 삶,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올해 ‘주와 대역사’가 표어이지 않느냐. 나와 대역사를 이루려면 변화해야 된다. 더 변화하고 완전히 변화해야 나의 재림을 맞는다. 너희가 변화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가까이하고 축복하여 개인·가정·교회에 대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모순을 뿌리 뽑고, 구시대 습성을 버리고,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듯 마음도 행실도 새롭게 하여 거듭나고 변화하자. 단상의 말씀을 통해, 또 계시자들을 통해 변화하는 너희에게 더욱 감동을 주겠다.

지난주에 못다 한 말은 수요일 밤에 하겠다고 한 대로 다 했다.

회개하고 깨끗이 하여 변화되고, 오직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변화된다. 항상 생각이 딴생각으로 흐르게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크게 변화된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다. 오직 섭리사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썩는 누룩을 섞지 말아라.

나머지 ‘변화’에 대한 것은 너희가 행할 때마다 더욱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면서 깨닫고, 너희가 변화하는 대로 영이 신령해지고, 육의 생각과 마음이 신령하여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달아 더 크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교회나 지도자들 모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변화되어야 내가 함께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고, 인사탄들에게도 이기고 승리한다.

이 해에는 ‘변화’라는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좋게 변화된 것이 다시 나쁘게 변질되지 않고, 작은 것도 큰 것도 더 좋게 변화되고, 너희 마음도 행실도 더욱 좋게 변화되고 빛이 나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사랑 속에 살게 된다.

성령이 더욱 함께하여 너희를 감동시키고, 내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나의 사랑과 능력이 너희와 더욱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너희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말씀한 주 예수다.

<영상6>

<자막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만이 주와 대역사를 이룬다.

<자막만> 1. 시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만 주와 대역사를 이룬다.

① <시대 말씀으로 변화>

*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시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		변화되지 않은 자들
* 이 시대		
예수님, 선생님, 시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		시대 말씀 안 듣고
		변화되지 않은 자들
		변화되지 않은
		구시대에 있는 자들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세상에 있었을 때도 변화되지 못한 자들과는 그 시대 구원의 대역사를 할 수 없었다. 나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행했던 자들만이 사도로서 나와 함께 신약 역사를 펴 나갔다. 이 시대도 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따라오는 섭리사 사람들을 데리고 시대 구원 역사를 이루며 재림을 위한 대역사를 한다.

<전환 : 자막과 말씀> 오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대역사를 펼 수 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인원수가 많아도 구원 역사를 펼 수 없다. 더 좋은 구원과 영광이다.

② <성령으로 변화>

성령집회 때와 개인 기도할 때의 모습 (더 깊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을 주시는 모습)

<예수님 말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가스 불이 꺼지면 왜 꺼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못 해 먹으니 못 산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성령의 불, 신앙

의 불, 열심의 불,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꺼졌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기도하여 불을 받아야 한다. 그 불로 각종 변화를 일으키고 행하며 보람된 삶,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③ 변화된 자들의 영이 하늘을 나는 모습

<자막과 말씀> 나와 대역사를 이루려면 변화하여라. 너희가 변화하는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축복하며 대역사를 이룰 것이다.

→ 예수님 인사 “샬롬!”

<마지막 자막> 변화의 대역사